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부 40 생방송 오늘〈광주〉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오늘 2부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 연속극 〈장미의 전쟁〉
30 KBS 뉴스	00 희망릴레이 20 아침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 50 여유만만	9	30 MBC뉴스 45 기분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국회인사청문회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10		40 SBS 뉴스
	00 지구촌 뉴스 20 TV 특강(재)	11	00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재)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00 인간극장 스페셜 1~2부(재)	12	00 MBC 뉴스 25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00 SBS 12 뉴스 30 KBC정책대담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에게 듣는다〉
00 KBS 걸작선 〈결혼해주세요〉(재)		1	15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욕망의 불꽃〉(재)	30 마님의 식탁(재)
00 KBS 뉴스 10 KBS 교향악단 제652회 정기연주회	10 퀴즈쇼 사총사(재)	2	20 국회인사청문회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45 세계는 지금(재)	00 KBS 뉴스타임 05 꼬마과학자 시드(재)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		10 테마스페셜(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갈매기도시 樂〈부산〉	00 TV유치원 30 뛰뛰빵빵 구조대	4	00 MBC뉴스 10 뽀뽀뽀 아이조아 40 매직 테일즈	00 스캔2고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성공예감	5	10 연예플러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30 세상발견 유레카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러브 인 아시아	10 생생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25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야〉	40 KBS 뉴스타임〈광주 전남〉 50 1대100	8	15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월화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 드라마 〈강력반〉	9	55 MBC 특별기획 드라마 〈짝패〉	55 월화미니시리즈 〈마이더스〉
00 시사기획 KBS 10 45 세계는 지금		10		
00 KBS 뉴스 라인 40 콘서트 필	15 김승우의 승승장구	11	15 PD수첩	15 강심장
25 KBS 뉴스 35 KBS 특선월드 〈피부색이 감춰진 비밀〉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2	10 MBC뉴스24 30 앙코르 MBC프라임 〈고추장, 붉은 맛에 매혹되다〉	45 나이트 라인

EBS

06:00 신나는 인생 5678
06:30 직업의 세계 〈일인자〉
07:00 미스 스파이더와 개구쟁이들
07:25 내 친구 티미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
08:35 우당탕탕 아이쿠
08:45 따개비 루
08:55 꼬마버스 타요
09:10 방귀대장 뿡뿡이
09:25 도와줘요 코알라 형제
09:35 팅가팅가 이야기
09:50 깨미
10:05 로보의 별나라 여행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이혜정의 맛있는 보약밥상〉
11:00 60분 부모
12:00 EBS 정오 뉴스
12:10 TV 평생대학 〈역사이야기〉
13:00 세계테마기행 〈중국 동북지방의 겨울이야기〉
13:40 한국기행〈대구〉
14:00 다큐프라임 〈남과 여〉
14:5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15: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5:35 깨미(재)
15:50 내친구 티미(재)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특수요원 오소(재)
16:45 방귀대장 뿡뿡이(재)
17:00 꼬마버스 타요(재)
1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7:25 따개비 루(재)
17:35 도와줘요 코알라 형제(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창의·인성 프로젝트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18:50 와글와글 친구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정글북
19:35 베르사유의 장미
20:00 영혼의 전사들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
20:50 세계테마기행 〈강인한 영혼의 땅, 파키스탄〉
21:30 한국기행〈완도〉
21:50 하버드 특강 〈정의〉
22:50 직업의 세계 〈일인자〉
23:10 다큐 10+〈과학〉
00:10 지식채널 ⓔ(재)
00:15 세계의 교육현장
00:45 TV 평생대학 〈역사이야기〉

EBS플러스1

04:10 EBS 포스 〈김경한의 적분과 통계〉
05:00 수능특강 〈윤윤구의 사회문화〉
05:50 〃 〈윤희석의 경제〉
06:40 〃 〈윤혜정의 언어영역〉
07:3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08:20 EBS탐스런 〈김지은의 경제지리〉
09:10 〃 〈김종국의 경제〉
11:20 내신6감 〈정승제의 수학(상)〉
12:10 수능특강 〈기상호의 화학 Ⅰ〉
13:00 수능특강 〈최태성의 한국근현대사〉
14:00 〃 〈가이봉균의 한국지리〉
15:00 EBS탐스런 〈여한종의 생물 Ⅰ〉
16:00 〃 〈한종철의 생물Ⅱ〉
17:00 기본과 특별한 (재) 〈곽정원의 수학(상)〉
18:00 〃 〈조연의 한국사〉
19:00 수능특강 〈장인수의 물리 Ⅱ〉
20:00 〃 〈이은희의 화학 Ⅱ〉
21:00 〃 〈박상준의 수학 Ⅱ〉
22:00 〃 〈삼주석의 수학 Ⅰ〉
23:00 〃 〈류성완의 국사〉

EBS플러스2

08:00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3학년1학기 〈수학〉
08:30 초등수학-매스트레이닝 15:50 〃 4학년1학기 〈수학〉
09:00 중학 3학년 〈국어〉 16:20 〃 5학년1학기 〈수학〉
09:40 〃 〈수학 3-1〉 16:50 〃 6학년1학기 〈수학〉
10:20 중3 퍼펙트 체크업〈수학3-1〉 17:20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
11:00 중학 1학년 〈영어〉 17:50 중학 1학년 〈비문학1〉
11:40 잊혀져 가는 것 들 Ⅱ 18:30 〃 〈영어〉
11:50 중학 2학년 〈영어〉 19:10 중1 퍼펙트 체크업 〈사회〉
12:30 〃 〈수학 2-1〉 19:50 중학 2학년 〈영어〉(재)
13:10 중2 퍼펙트 체크업〈역사(상)1〉 20:30 〃 〈수학2-1〉(재)
13:50 중학영어 독해 Level 1 21:10 중학 3학년 〈국어〉(삼)
14:30 EBSe 초등영어 21:50 〃 〈수학3-1〉(삼)
14:50 EBS 클립뱅크(2) 22:30 중학 1학년 〈비문학1〉(재)
15:10 Sing Sing 영어동요 23:10 왕초보 중학영어 영작(재)
15:20 초등내공 남냠 00:30 선킴&쉐인 Easy Job English

새단장 '일밤' 쾌조의 스타트

'나는 가수다'·'신입사원' 오디션프로 시청률 2배 늘어

대대적인 코너 개편으로 새단장한 MBC '우리들의 일밤'이 첫 방송부터 화제를 모으며 일요일 지상파 예능 판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7일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들의 일밤'은 전날 8.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코너 개편 직전인 지난달 20일 '오늘을 즐겨라'와 '뜨거운 형제들'이 각각 기록한 4.5%, 4.0%보다 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

경쟁 프로인 KBS '해피선데이'는 21.0%, SBS '일요일이 좋다' 중 '런닝맨'과 '영웅호걸' 코너가 각각 11.2%, 8.6%로 지난 주와 비슷했다.

'나는 가수다'가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했다는 호평을 받은 반면 '신입사원'은 자사 홍보에 치중해 흥미를 반감시켰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정상급 가수 7명의 노래 대결이 펼쳐진 '나는 가수다'는 감동의 무대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하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방송 내내 이소라, 김범수, 박정현, 김건모 등 출연 가수들은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청중 평가단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공연 도중 코멘트를 배치한 편집은 몰입도를 떨어뜨려 아쉬움을 샀다.

반면 아나운서 오디션 코너 '신입사원'은 본격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사내 홍보 방송 같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격적인 아나운서 채용에 앞서 MBC 아나운서 50년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취지로 추억의 프로그램을 재현하고 대선배 아나운서에게 헌정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그러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시간은 선배 아나운서의 공을 강조하는 데 할애됐고 도전자들의 모습은 거의 비춰지지 않았다.

'해피선데이' 역시 '1박2일'이 새 멤버 영입으로 달라진 분위기를 선보였고 '남자의 자격'이 리얼 버라이어티의 감동을 이어가면서 일요일 예능의 최강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5개월 넘게 5명 체제로 운영되던 '1박2일'은 이날 제6의 멤버 엄태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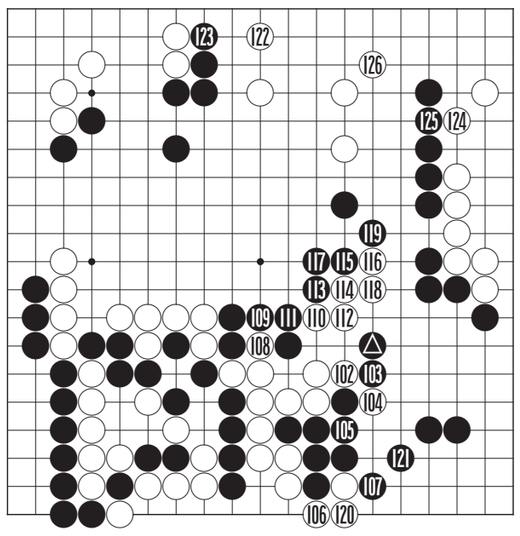
'남자의 자격'은 김태원의 위암 수술기를 통해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태원이 위암 초기 진단을 받던 순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수술 과정과 퇴원 후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연합뉴스

제7회 서구청장배

확실한 마무리

최강부 결승전 8보(102~126)

白 심재욱 6단 黑 권세혁 6단



권세혁 6단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로 씌워 보았으나 이때는 이미 물건너간 분위기다. 봉쇄가 쉽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설혹 봉쇄가 된다손 치더라도 수상전으로 흑이 잡혀있다.

반면 심재욱 6단은 흑 대마를 잡아놓고 희희낙락하고 있다. 승리가 거의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는 어려운 대목도 없다.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백 102부터 110으로 뛰어 봉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백의 자랑이다. 도중 108로는 그냥 110에 뛰는 것이 수를 메우지 않아 정수이나 심재욱 6단은 '만사가 불여튼튼'하는 심정으로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고 있다. 확실한 수만 두면 된다는 식이다.

권세혁 6단은 이성을 잃고 흑 119까지 억지로 틀어막았으나 이 수가 선수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심재욱 6단이 한술 더 떠 백 122로 유일하게 불안하던 곳에 말뚝을 쳐버린다. 이것은 '끝났습니다'하는 선언과도 같다. 흑 119로는 지금이라도 122의 곳에 두어서 백을 괴롭혔으면 약간은 희망이 있었다.

백 126까지 잽싸게 안정을 취해서는 상황 끝이다. 심재욱다운 확실한 마무리였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8일(음 2월 4일 壬戌)

子 36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8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60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신사를 계획하라. 72년생 구설수가 타인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84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행운의 숫자 : 12,35

丑 37년생 꿈을 갖고 노력 하면 가능성 보일 것이다. 49년생 나쁜 일이 쫒아 다닌다. 주의해야. 61년생 봉사하라 일석이조 있으리라. 73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85년생 돈이 생기나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4,33

寅 38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가 된다. 50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니 자세하게 살피라. 62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74년생 알뜰살뜰 지내야 큰 손실을 막으리라. 행운의 숫자 : 18,30

卯 39년생 어려움은 잠시 일 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51년생 오늘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리로다. 63년생 온 식솔이 평안하다. 75년생 인덕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20,28

辰 40년생 인생은 연출이다 멋지게 보내라. 52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 64년생 지혜롭게 지내고 정도를 걸으면 마음은 봄날이다. 76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행운의 숫자 : 21,27

巳 41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행해야. 53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 65년생 가정불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니 서로서로 양보하라. 77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자만 갖는다. 행운의 숫자 : 22,26

午 42년생 결정은 내일로. 손재가 보인다. 54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리라. 6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실패한다. 78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마음이 현란하다. 행운의 숫자 : 01,45

未 43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55년생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되니 주의하여 들으라. 67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채워지리라. 79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 어려운 일도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02,44

申 44년생 마음이 갈팡질팡 이다.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 할 터. 56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68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걱정은 없다. 80년생 새 문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03,43

酉 45년생 식복이 넘치나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로다. 69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81년생 자녀의 주변도 살펴봐야,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31

戌 46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58년생 좋은 옷 입고 즐거운 날이다. 70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2년생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23,25

亥 47년생 초고후안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59년생 편안한 하루이나 큰 득은 없다. 71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백배 하리라. 83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24,16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let me put it this way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A : I wonder how the employee baseball game will go.
B : Good question. The managers are all in town for the annual meeting.
A : Well, let me put it this way, the employee game is supposed to be a chance to wind down.
B : I know, but everyone will be up tight because of the managers.
A : I am going to just relax and have fun.
B : I understand. The managers are people too.

A : 직원 야구시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B : 질문 잘 하셨습니다. 부장님들은 모두 시내에 계십니다, 연례회의때문에요.
A : 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직원 시합은 긴장을 푸는 시간이 될 겁니다.
B : 그래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장님들 때문에 불안해 할 겁니다.
A : 나는 그저 푹 긴장을 풀고 즐기려고 하는데.
B : 그렇죠. 부장님들도 사람인데요.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あの人に氣があるの。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A : 今どきめずらしい女性だな。
B : あの人に氣があるの。
A : 彼女は誰にでも好かれるタイプだよ。
B : でも、私は彼女のようなタイプが氣に入らないよ。

A : 요즘 세상에 (보기)드문 여성이야.
B : 저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A : 그녀는 누구나 좋아할 타입이야.
B : 하지만, 나는 그녀 같은 타입은 마음에 안 들어요.

[단어정리]
珍しい 진귀하다 持てる 인기가 있다
好かれる 사랑받다 氣がある 마음이 있다
氣に入らない 마음에 들지 않다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

니하오 쭝구워

脚踏两只船 jiǎo tà liǎngzhīchuán
양다리 걸치다

'다리(脚)가 배(船) 두 대(两只)에 걸쳐 있다(踏)' 라는 말로 '양다리 걸치다' 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관계에서의 양다리에도 쓰이고, 일을 추진하면서 대립하는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기회를 보다가 자신의 향후 거취를 결정짓는 행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군대 외박 나와 춘천 공지천이었지요. 보트 타던 중 내 쪽에서 상대편 배 쪽으로 옮기려고 한 다리를 상대방 보트에 올리는 순간 배 사이가 벌어지면서 다리가 쫙 벌어지고 힘 한번 쓰지 못한 채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지요. 양다리 걸치면 개꼴 당한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勸善懲惡(권선징악)
권할 권, 착할 선, 징계할 징, 악할 악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짓을 징계한다는 뜻이다.

노(魯)나라 성공(成公)때, 제(齊)나라로 공녀(公女)를 맞이하러 가 있던 교여(僑如 : 선백)가 부인 강씨(姜氏)를 제나라로 데리고 돌아왔다. 교여라고 높여 부른 것은 부인을 안심시켜 슬며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이보다 앞서 갔었을 때는 선백(宣伯)을 숙손(叔孫)이라고 불러 군주(君主)의 사자로 높여 부르기도 했다. 군자는 이렇게 말했다. "춘추(春秋)시대의 호칭을 알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알기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뜻이 깊고, 빙글빙글 도는 것 같으면서도 정돈되어 있고,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품위가 없지 않으며, 악행을 징계하고 선행을 권한다(勸善懲惡). 성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는가" 권선징악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출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급수 : 한자능력검정 4급 5급 3급 5급

〈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